

## 18세기 '중국풍 정원(Anglo-Chinese garden)'의 문화전이에 관하여

김 대 신 (인천가톨릭대학교)

### I. 들어가며

### II. 르네상스 전통과 '정형식 정원'

### III. 18세기 문화전이를 통한 정원

1. 영국의 '중국풍 정원'의 탄생
2. 프랑스 및 기타 지역의 '중국풍 정원'

### IV. 나가며



## I 들어가며

인류의 문화는 다양한 집단과 사회의 행동양식과 상징체계를 통하여 보편성과 다원성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오늘의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 등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인한 정보의 교류와 확산은 문화의 다원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문화의 혼종성이라는 해석으로 현대문화의 특징을 설명하기도 한다. 한편, 현대문화의 담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조망하며 문화의 다원성을 함께 수용하려는 비평적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문화 비평적 관점과 문화상대주의의 관점에서 오늘의 문화를 바라보며 문화제국주의와 자문화중심주의를 지양하는 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와 교류를 통하여 공존, 혼성과 융합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전형(典型)을 이루지만 지속적으로 생성 변화한다. 현대문화의 전형은 타문화의 수용 과정에서 인종, 지역, 민족 혹은 국가 등이 가지는 정체성의 문제를 들어내며 문화의 다양성과 혼종성을 그 특징으로 가진다. 21세기 정보화 시대는 동시대 문화의 교류와 확산을 가속화하며 문화의 변동을 빠르게 증가시켜 지정학적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 오늘의 문화 현장은 급속한 변동의 과정을 거쳐 다양성과 혼종성의 문화를 빠르게 재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동의 실체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의 전형은 서로 다른 문화가 양방향적인 교섭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화전이(cultural transfer)’라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이 현상을 연구 분석하여 현대문화를 이해하는 비평적 증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문화전이에 관한 연구는 그 출발에서부터 ‘문화를 어떻게 조망하며,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연구자의 지정학적 위치와 해석학적 관점의 차이에 따라 연구 성과물의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본 연구의 접근 방법은 동서 문화의 교섭사를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주체적 관점으로 바라보며 비평적 촉각을 세워 18세기 정원예술을 재조망하고자 한다. 서구 중심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sup>1</sup>이 가지는 시대착오적 해석으로부터 벗어나 동양에서 문화전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 질문을 가지고 유럽 문화 속에 진행된 정원예술의 양식적 변화에 집중하며 현대 문화 현상을 주체적으로 분석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 연구를 병행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한 ‘중국풍 정원(Anglo-Chinese garden)’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논문의 주제는 유럽의 정원양식을 다루고 있지만 그 양식적 영향을 받은 중국 정원(Chinese garden)의 전형인 ‘원림(園林)’<sup>2</sup>에서 찾았기 때문에 두 정원 문화의 교차연구가 필요하다. 산수화(山水畵)의 제작원리를 따라 원림을 제작하기에 2차원의 평면예술의 3차원적 재현(representation)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림을 연구한다는 것은 미술이론의 연구 대상의 확장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자는 원림에 담긴 산수화의 제작 원리가 문화전이의 과정을 거쳐 ‘중국풍 정원’에 중요한 제작 방식으로 작동한 것에 주목하며 본 연구를 시작하고자 한다.

원림은 18세기 유럽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면서 ‘중국풍 정원’이라는 독특한 양식적 전형을 이루었으며 ‘유럽 정원(European garden)’의 새로운 변종의 촉매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원림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소개된 이후에 정원의 양식적 변화는 무엇인가? 산수화의 반영인 원림과 유럽 정원은

1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 1935-2003)는 오리엔탈리즘이 가지는 서구 중심주의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비판한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비판은 문화제국주의의 비평적 관점과 함께 오늘날 아시아 문화 비평의 잣대로 그 유효성을 가진다. 미술이론에서도 서구중심주의의 타자화된 동양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오리엔탈리즘의 시대착오적 오류를 경계하며 현장연구의 다각적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야할 것으로 보인다. Edward W. Said, *L'Orientalisme. L'Orient créé par l'Occident*, trans. C. Malamoud (Paris: Seuil, 1980), p. 13, pp. 55-56.

2 ‘원림’은 중국, 한국, 일본 등 한자문화권에서 통용하는 개념으로 ‘중국원림(中國園林)’을 일괄하며, 본문의 ‘정원’은 일본식 번역어 ‘정원(庭園, ていえん)’, 불어 ‘자르뎡(jardin)’ 혹은 영어 ‘가든(garden)’과 같은 사전적 개념을 통칭하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관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원림에 담긴 산수화의 재현이 정원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정원사의 변동은 문화전이 라는 현상으로 해석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들은 본 연구가 회화예술과 정원 예술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인식 확장의 기회를 마련하며 산수화의 전통이 어떻게 지정학적으로 다른 문화의 정원예술로 전이되었나 그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회화예술과 정원예술의 제작원리를 공통으로 가진 원림의 영향을 받은 ‘중국풍 정원’에 대한 본 논문의 분석은 18세기 미술사와 문화사의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전이 현상을 연구한다. 미술이론의 통섭적 연구 방법론의 모색으로 동서 정원예술의 문화전이 현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오늘의 미술과 문화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인식의 확장을 시도한다.

## II 르네상스 전통과 ‘정형식 정원’

18세기 유럽 정원은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formal garden)’과 영국의 ‘풍경식 정원(landscape garden)’으로 대별되며 양식적 대비를 이룬다. 프랑스의 ‘정형식 정원’은 르네상스 전통을 이은 기하학적 대칭 구조를 갖는 반면 자연스러운 곡선의 비대칭 구조를 가진 영국의 ‘풍경식 정원’은 탈기하학적인 형식을 추구하며 르네상스 전통에 벗어나 있다. ‘풍경식 정원’은 르네상스 전통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며 정원사의 양식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유럽 정원의 새로운 자연주의적 감수성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풍경식 정원’의 전형은 ‘풍경화’를 주제로 삼았으며 풍경과 정원에 대한 미학적 고찰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등장하였다.<sup>3</sup> 유럽의 17세기 풍경화에서 정원 제작의 양식적 전형을 찾았던 ‘풍경식 정원’의 미학 개념인 ‘픽처레스크(picturesque)’는 동시대의 건축 양식에도 활발하게 이식되었다.<sup>4</sup> 한편, ‘풍경식 정원’의 출현은 정

3 ‘풍경식 정원’의 전형으로 삼은 대표적인 풍경화는 클라우드 로랭(Claude Lorraine, 1600-1682)과 니콜라 푸생(Nicolas Poussin, 1594-1665)의 작품 속에서 찾을 수 있다. David Mikics, *A New Handbook of Literary Term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 223-234.

4 김홍기,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1, 신화와 낭만의 시대』 (서울: 아트북스, 2007), pp. 23-24.

원에 관한 정치학적 관점에서 유럽 사회의 시민적 인문주의를 수용한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sup>5</sup> ‘풍경식 정원’은 영국의 양식적인 전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원림’의 형식과 내용을 차용하고 변형한 ‘중국풍 정원’이라는 이국적인 전형을 동시대에 공유하고 있었다. 본문은 그리스·로마와 르네상스의 전통과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의 변화를 먼저 개괄하여 살펴보고 ‘풍경식 정원’과 ‘중국풍 정원’의 양식적 변화의 상호 관계를 주지하며 유럽 정원에 나타난 문화전이 현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초기 유럽 정원의 기원을 찾는다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과 왕족을 위한 페리스타일(peristyle)이라는 건축 구조물의 일부분이었다. 유럽의 전통 정원은 기본적으로 건축 구조물과 함께 변모하였다고 할 수 있다. 페리스타일은 건물의 열주로 둘러싸여 하늘로 열린 공간을 가지며 사각형의 정원을 포함하였다. 초기 페리스타일 정원은 건물 안에 안뜰처럼 생긴 공간을 만들었으며 그리스·로마의 정원을 거쳐 중세 성직자들의 생활공간인 수도원의 ‘회랑(回廊, cloister)’이라는 넓게 확장된 공간의 정원으로 변모하였다. 중세의 정원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채소와 과실수 등을 재배하는 자급자족을 겸한 실용적인 정원의 전통으로 이어졌고 건물에 둘러싸인 공간에 조성된 정원구조에서 건물 밖 공간의 확장을 가져온 열린 정원 구조로 바뀌었다. 르네상스 정원은 중세 정원의 형식을 계승하면서 그 양식적 변화를 가졌으며 그 구성 방법의 특징으로 기하학을 이용한 설계와 제작 원리를 마련하였다. 특히, 초기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정원의 특징은 고대 그리스·로마의 고전을 이상으로 삼고, 수학적 비례와 원근법을 적용한 조형미의 반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이탈리아 정원은 산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진 지형을 다듬고 정리하여 계단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전원에 위치한 호화 별장인 빌라(villa)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sup>6</sup> 이탈리아 정원 양식은 기하학적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몄으며 르네상스 정원

5 안자이 신이치, 김용기·최종희 역, 『신의 정원 에덴의 정치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p. 274.

6 지정학적으로 피렌체(Florence)의 언덕에서 태어난 초기 르네상스의 정원은 중세 건물(villa) 뒤편에 자리 잡았으며 화려한 축제나 연극을 위하여 마련한 극장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John Dixon Hunt, *Garden and Grove: The Italian Renaissance Garden in the English Imagination, 1600-17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p. 12.

의 독자적인 전형을 이루었다. 이탈리아 정원의 기본 구성은 수평 구조의 조성 계획을 가졌으며, 돌담으로 둘러싼 대지나 성토(成土, *terrasse*)로 이루어진 계단식 정원을 만들었고 잘 다듬은 전지(剪枝) 식물로 만든 차폐막(遮蔽幕)의 사용은 새로운 창안으로 정원의 구획을 나누는 틀의 역할을 하였다. 직선으로 길게 뻗은 조망을 가진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이탈리아 풍경의 가치를 높이려는 기본 구조를 계획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고대를 모방한 조각상,<sup>7</sup> 휴식을 가져다주며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는 물, 질서정연한 배치로 선별된 식물들, 수학적 분할로 나누어진 기하학, 균형을 이룬 대칭의 구조 등으로 핵심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채웠다. 르네상스 건축 설계의 일부분이었던 정원 설계는 고전의 미학이 추구한 기하학적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였고, 광물과 식물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을 따른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기하학적인 정원제작의 기본 원리는 피렌체 정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탈리아 정원의 제작원리로 작동하였다. 기본적인 정원 계획은 중심건물을 가운데에 두고 축선(軸線)으로 삼아 식물을 배치하였고 종 횡단의 산책길을 마련하여 뚜렷한 대칭 구조를 강화하였다. 르네상스 정원은 넓은 잔디밭, 나무나 철로 만든 격자 모양의 정자(*treilles*), 아치형의 소사나무로 장식한 가로수 그리고 조각상으로 꾸민 분수 등으로 인공적 구성을 강화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 구성 방식은 차츰 넓은 시야를 확보하는 열린 공간과 광범위한 여러 층을 이루는 테라스의 구조를 만들어 전체적 조화를 추구하였다.<sup>8</sup>

프랑스 ‘정형식 정원’은 16세기 중반에 도입한 르네상스 이탈리아 정원의 전통을 따랐다. 이탈리아 정원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대칭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한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확산은 인위적으로 다듬고 꾸민 유럽 정원의 전성기로 해석하기도 한다. 기하학적 정원의 전형을 이룬 ‘정형식 정원’

7 르네상스 정원 속에 등장하는 조각은 고대의 신화적 서사에 등장하는 신들의 조각, 즉 주피터(Jupiter) 조각상과 아펜니노(Apennine) 조각상, 그리고 인류가 살아온 땅의 기원을 재현하는 동굴 조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8 르네상스의 대표정원은 피렌체 대가문의 별장용 전원주택 빌라 에스테(*villa d'Este, Tivoli*), 빌라 란테(*villa Lante, Bagnaia*)와 빌라 파르네제(*villa Farnese*)에 조성한 정원이며, 이 정원들은 기하학적인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제작되었고 중심 건축물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며 전형적인 르네상스 이탈리아 정원 양식의 전형이 되었다. Chip Sullivan, Elizabeth Boultis, *Illustrated History of Landscape Design* (New York: John Wiley & Sons, 2010), pp. 81-89.

의 특징은 자연의 혼돈에서 이성이 만든 질서의 승리를 의미하며 야생과 자연의 상태에서 계획하고 다듬고 재배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것은 정원예술의 이상을 자연 발생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것으로 계획하는 미적 기준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기하학을 바탕으로 조성한 프랑스 정원은 식물을 인공적으로 다루는 기술과 미학을 반영한 조형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였고, 17세기에 이르러 유럽 정원설계의 양식적 전형을 만들어 나갔다. ‘자수화단(parterre)’을 포함한 기하학의 화려한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미학은 앙드레 러 노트르(André Le Nôtre, 1613-1700)가 설계한 베르사유 궁정(宮庭)의 완성 이후 유럽 각국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편, 초기 계몽주의의 프랑스 정원은 복잡하고 정교한 기하학적 구성을 가지며 철학적 우화(寓話)를 표현하거나 왕족이나 귀족의 진귀한 소장품(collection)을 보며 즐기기 위한 화려한 장식의 정원이었다. 복잡한 구성의 계몽주의 정원은 계몽 정신을 구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으며 이를 예증하기 위한 서사적 우월성을 표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설계 제작하였다. 그 속에는 진귀한 이국적 취향을 담은 구조물들이 넘쳐났고 먼 나라에서 영향을 받은 기념물, 탑, 중국식 정자, 타르타르(tartar)의 텐트, 로마의 아치, 이국적 건물 등을 제작 설치하였다. 이러한 구조물은 넓게 펼쳐진 풍경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와 영적인 상징이나 마음에 ‘감동 주기’를 통한 순수하게 정신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원에 설치한 다양한 구성 요소는 이국적 취미를 재현하였으며 18세기 로코코 양식으로 이어져 또 하나의 유럽 정원양식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sup>9</sup>

프랑스 정원의 기하학적 표현은 파리의 ‘튀르리 궁전(Tuileries)’ 정원과 맨시(Maincy)에 위치한 ‘보 르 비콩(Vaux-le-Vicomte)’ 정원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파리의 ‘왕립궁전(Palais Royal, Paris)’의 정원, ‘상티이 성(Château de Chantilly)’의 공원, ‘밀리 라 포레의 궁(Courances à Milly-la-Forêt)’의 정원,

9 17세기 초 유럽의 중국에 관한 이국적 취미는 ‘시누아즈리(chinoiserie)’의 특징을 이루었고, 공예품과 같은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술품이 주류를 이루었다. 18세기에 이르러 ‘시누아즈리’는 미술품을 넘어 건축과 정원예술로 확장되었다. 영국의 ‘중국풍 정원’에 설치된 구조물, 건물, 조각품은 먼 나라의 환상을 담은 ‘시누아즈리’의 한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Michael Sullivan, *The Meeting of Eastern and Western Art*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 109.

‘생클루 국립공원(domaine national de Saint-Cloud),’ ‘베르사유 궁정(domaine de Versailles),’ ‘룩셈부르크(jardin du Luxembourg, Paris)’의 정원, ‘빌랑드리 성(château de Villandry)’의 공원, ‘퐁텐블로(Fontainebleau)’의 정원 등을 고전적 해석에 충실한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대표적 전형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과 자연스러운 곡선을 가진 원림은 그 기본 구성 원리로 대칭과 비대칭으로 상반된 특징을 가지며 설계 도면상에서도 양식적 대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식적 대비는 기하학을 바탕으로 만든 형태와 불규칙한 굴곡이 있는 형태, ‘토피에르(topiary)’로 줄 지워 장식한 식물과 자연스럽게 자란 식물, 평평하게 만든 땅과 기복이 심한 땅, 솟아나는 물과 잔잔한 물, 돌로 만든 건축물과 나무로 만든 건축물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상록수와 낙엽송, 한 종류의 식생(植生)과 다양한 종류의 식물, 울타리로 만든 간헐 공간과 밖으로 열린 공간, 다듬어진 돌과 기괴한 바위 등으로 그 양식적 대비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은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 두 정원의 구성, 구조 그리고 상징체계를 용이하게 구분하는 방법과 양식적 판단의 기준점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은 수학적으로 계획하여 직선과 기하학적인 곡선으로 정원의 구성을 규칙적으로 정리 정돈하여 제작하였다. 이것은 산수화의 조형 원리를 담은 중국 원림의 재현 방식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정원문화는 조경 공간의 시각적 재현, 정원의 구성 방식, 정원의 제작원리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르네상스 전통을 이은 유럽 정원의 미의식은 자연을 길들이고 이용하고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질서 정연하고 정확한 프랑스 ‘정형식 정원’의 기하학적 설계 안에서 그 조형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형식 정원’의 설계와 구성은 기하학에 기초한 고전의 미학적 의지를 반영한 야심찬 정원예술의 결과물로 여겨진다.

### III 18세기 문화전이를 통한 정원

본문은 르네상스의 기하학적 정원의 전통을 따르던 ‘정형식 정원’이 동·서



문화가 활발히 교류하던 18세기 유럽 정원문화의 변화에 집중하여 고찰한다. 이탈리아 정원에서 프랑스 정원으로 이어진 기하학적 정원은 르네상스의 전통을 계승한 유럽 정원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기하학에 기초한 유럽 정원의 전형은 점차 변화의 과정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풍경식 정원’의 등장 이후 새로운 양식적 변동의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 새로운 국면은 중국 정원의 유럽 소개와 함께 진행된 영국의 ‘중국풍 정원’의 출현과의 깊은 연관성을 보인다. 18세기 중반 이후 유럽 정원은 기존의 전형과 다른 타문화의 영향으로 정원 문화의 혼종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르네상스의 기하학적인 정원은 중국 원림과 만나 어떤 양식적 변화를 이루었는가? 유럽 정원의 제작 원리 속에 산수화의 조형 원리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현되었나? 한편, 중국 원림은 문화전이의 관점에서 유럽 정원에 영향을 받아 새로운 변화를 가지는가? 위의 질문들은 문화전이의 관점에서 18세기 유럽 정원의 정체성과 문화적 혼종성을 확인하는 방편이며 ‘중국풍 정원’이 가지는 문화전이의 조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대칭적 구조와 직선적 구성을 가진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과 자연스런 곡선의 구성을 가진 영국의 ‘풍경식 정원’은 두드러진 차이를 가진다. 두 정원 양식의 시각적인 차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르네상스의 기하학적 형식을 중시하던 정원 양식에서 자연스런 곡선으로 변화를 시도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의 구성과 제작원리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원림이 가지는 산수화의 조형 원리의 반영인 ‘중국풍 정원’은 ‘풍경식 정원’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중국풍 정원’의 어원에 포함된 ‘영국과 중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나? 오늘날 영국식(풍경식) 정원과 프랑스식(정형식) 정원으로 나누는 양식적 용어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중국풍 정원’을 둘러싼 문화전이의 양식적 비교연구와 융합적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6세기경 시작한 산수화는 중국, 한국, 일본 등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의 중요한 시각예술로 자리 잡았으며 ‘산수(山水)’라는 고유한 회화의 영역으로 독자적인 산수화론(山水畫論)을 형성하였다. 산수의 사전적 의미는 경치(景致), 광경(光景), 풍경(風景), 풍광(風光), 풍수(風水) 등이 가지는 공통의 한자어 어원

을 가진다. 산수는 세계의 본질과 현상을 음(陰)과 양(陽)이라는 우주적 상징을 이루는 두 개념의 시각적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산과 물은 음과 양으로 상징되는 물질세계 너머의 사유와 기호를 담고 자연과 인간을 아우르며 조화를 추구한 우주적인 원리를 함의한다. 이와 같이 산수화는 산과 물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다루지만 단순한 형상의 모방(mimesis)이 아니라 그 재현의 문제를 형이상학으로 표현한 중국 회화사의 전통을 따른다. 산수화의 두 가지 기표(signifiant)인 산과 물은 물리적, 공간적, 심미적 표현에 그치지 않고 기의(signifié)를 가진다. 산과 물은 산수화의 조형적 구성요소이며 동시에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상태로 바라본 동양의 철학적 사고의 구조를 상징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산수화는 자연을 화폭에 담아 인간과 자연이 공존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상향을 추구한 세계관의 반영이었다.<sup>10</sup> 도장사상의 확산 이후, 산수화는 천지인(天地人)을 서로 화합하는 것으로 보고 도(道)에 순응하며 합일을 추구하는 도가적 사상을 담은 것으로 동양인의 자연관과 인생관을 재현한 시각예술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도가사상을 반영한 산수화는 형태의 단순화와 추상의 단계를 거친 형이상학의 이상향의 세계를 표현한다.

중국 원림의 제작원리는 산수화론을 닮아 있다고 한다. 산수화론의 효시로 알려진 종병(宗炳, 375-443)은 『화산수서(畫山水序)』에서 산수를 표현함에 있어 자연의 형상에 화가의 '의경(意境)'을 표현할 것을 강조하였다.<sup>12</sup> 사혁(謝赫, 479-502)이 정리한 『고화품록(古畫品錄)』의 '육법(六法)'에서 기술한 기운생동의 원리는 자연의 음과 양의 조화를 추구한 형이상학(metaphysics)의 미학을 담고 있었다. 한편, 곽희(郭熙, 1023-1085)의 『임천고치(林泉高致)』에서 '삼원법(三遠法)'을 통하여 다원적인 시점의 산수화 제작법을 제시하였다. 삼

10 산수화(山水畫)는 동양인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예술적 표현으로서 창의력의 대표적 표현체이기에 다른 회화장르보다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적 생각들을 보다 다양하게 작품에 담아왔을 뿐 아니라 인간의 창의성을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동양인의 미의식(美意識)을 나타내는데 첨단을 걸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서울: 일지사, 1990), p. 26.

11 허영환, 『동양미의 탐구』(서울: 학고재, 1999), pp. 294-295.

12 종병은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仁者樂山)'라는 장자의 말을 언급하며, 산수는 도를 가지고 있고 성인과 현자는 산수를 통하여 '마음을 맑게 하고 도를 본다(澄懷觀道)'라고 하였다.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서울: 돌베개, 2007), p. 30.

원법의 ‘원(遠)’은 현상 너머의 초월적 상태의 정신 표현을 추구하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문인(文人)의 정신세계를 담은 서화동원론(書畫同原論)은 당·송 시기를 거치면서 원림의 제작 원리에 적용되었다. 특히, ‘시정(詩情)’과 ‘화의(畫意)’를 원림의 제작 원리에 붙여넣고자 하였다.<sup>13</sup> 이러한 회화론과 산수화론은 자연의 표현 속에서 마음과 정신의 해방을 찾아 탈속과 초월을 추구한 조형 세계를 이루고자 하였으며 전통 정원의 설계와 제작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명나라 말 계성(計成, 1582-1642)은 원림의 고전적 조형 원리를 정리한 『원야(園冶)』를 집필하여 원림 제작의 전형을 마련하였다.<sup>14</sup> 원림의 기본 제작원리는 산수화의 재현을 추구하였고 구체적으로 산수화론의 온전한 3차원 공간의 반영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산수화론의 전통은 세계관과 철학적 사유 그리고 미학적 표현을 함께 공유한다.<sup>15</sup> 이러한 전통은 중국 원림에 고스란히 나타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공의 공간을 창조하며 교묘하게 자연을 모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독자적 공간예술은 산수화의 형식과 내용을 특별한 주제로 다루며 개척한 장르이다. 중국 원림은 산수화가 모델로 삼았던 자연의 불규칙성과 비정형의 아름다움을 주제로 삼아 실행한 3차원의 공간 창작의 결과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원림’은 산수화가 가지는 상징(symbol), 기호(sign)와 은유(metaphor)를 포함한다. ‘원림’은 인간의 관념적 이상향을 반영한 것으로 그 기본 제작원리는 자연 풍경을 축소 모형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원의 구성 요소는 인공으로 만든 호수와 언덕, 그리고 희귀한 식물과 돌 등으로 구조적 형식을 갖추고 현실 세계와 다른 이상향의 공간을 연출하였다. 한편 중국의 정원예술은 산수화를 직접 제작하거나 감상하던 문인(文

13 백운수는 원림의 조영기법(造營技法)이 추구하는 이념을 ‘의경’, ‘와유’, ‘조화와 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백운수, 『원림론에 미친 화론의 영향』, 『미학』 제41집, 2005, pp. 1-33.

14 이 책에서 언급한 ‘인지제의(因地制宜)’나 ‘차경득체(借景得體)’는 자연의 순리와 주위환경을 따르며 경관의 본질을 획득하고자 하였던 원림의 원리가 산수화의 조형 의식과 미적 담론을 전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야』의 한 구절인 “비록 사람이 만들더라도 본래 자연처럼 해야 한다(雖由人作 宛自天開).”는 중국 원림의 제작원리를 함축하고 있다.

15 송대 이후 원, 명, 청의 회화이론은 주로 ‘산수화론’과 ‘화조화론(花鳥畫論)’으로 문인의 심미관과 예술취미를 반영하였다. 특히 원대의 산수화론은 문인의 심미관에 완전히 젖어있었다. 갈로,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서울: 미진사, 1993), p. 17.

人)의 시적 영감(靈感)을 표현한 것으로 여가를 즐기는 장소이자 명상과 속고를 위한 자기성찰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중국의 '산수'라는 회화예술은 정원 예술과 공통점을 가지며 산수화론은 '원림'의 설계제작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 본문은 산수화의 상호 관계를 간략히 정리함으로써 '중국풍 정원'의 문화전이를 이끌어내는 논거를 제공한다. '중국풍 정원'에 담긴 산수화의 상징적 구조, 도상학적 의미, 미세한 형이상학적 논리 등을 밝히는 것보다 산수화가 원림의 기본 제작 원리와 정원의 구성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과 '중국풍 정원'이 가지는 문화전이의 관계성에 집중한다.

## 1. 영국의 '중국풍 정원'의 탄생

동·서 문화교류의 대표적 사건으로는 실크로드와 몽고제국의 확장을 언급할 수 있다. 마르코 폴로(Marco Polo, 1254-1324)가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유럽에서 먼 나라를 탐방하며 제작한 『동방견문록(Livre des merveilles du monde, 1298)』은 여러 차례 번역본을 통하여 유럽에 확산되었다. 이 책은 지리서(地理書)와 박물지(博物誌)의 성격을 가졌으며 유럽인이 가진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을 여행하면서 만난 중국 원림의 소개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그의 서술은 유럽 정원의 양식이나 제작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본격적인 원림의 소개는 이탈리아 선교사이며 강회제의 궁중화가였던 마테오 리파(Matteo Ripa, 1682-1746)에 의해 이루어졌다. 리파가 중국에서 직접 가져온 동판화 이미지는 유럽 정원사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는 1724년 중국에서 돌아와 황제의 여름별궁인 '승덕(承德, chengde)'의 풍경을 묘사한 36장의 동판화를 유럽에 소개하였다.<sup>16</sup> 이 시기는 중국의 원림이 유럽에 소개된 시점으로 중국의 정원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마테오 리파는 영국을 방문하면서 영국의 정원이 중국의 원림에 영향 받기를

16 이와 관련한 논문으로 Christophe Comental, "Un missionnaire italien a a Cour de Chine, Matteo Ripa peintre-graveur, introducteur de l'eau-forte en Chine," Ph.D. Diss. Université de Bordeaux III, 1991을 참고.

바라며 귀족을 대표하는 상류층의 다수를 만났다.<sup>17</sup> 그는 이들을 설득하여 각자의 정원 개발과 구획 정리를 중국 원림의 양식으로 바꾸기를 적극 추천하였다고 한다. 18세기 중엽 이후 영국 정원은 마테오 리파의 조언을 따라 미학적 조형적 재현을 중국 양식으로 바꾸며 ‘중국풍 정원’이라는 새로운 유럽 정원의 유행과 전형을 만들기 시작한다. 영국 정원은 르네상스의 정원 양식을 발전시킨 프랑스의 기하학적 정원과 다른 독자적 정원 양식을 개발하였다. 중국 원림은 르네상스의 기하학적 전통을 따르던 영국 정원의 변동 요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원림의 자연스러운 형태와 미학은 ‘중국풍 정원’을 탄생시켰고 이를 반영한 설계 방식과 조경 양식은 ‘풍경식 정원’을 구성하는 동시대의 참고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18세기 중엽부터 등장한 자연주의의 정원 양식인 ‘풍경식 정원’은 ‘중국풍 정원’과 서로 맞물려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음이 드러난다. 초기 ‘중국풍 정원’은 윌리엄 켄트(William Kent, 1685-1748)가 제작한 ‘풍경식 정원’의 대표인 ‘체스윅 하우스(Chiswick house)’의 정원 제작에 영향을 준 것으로 고찰된다. ‘중국풍 정원’과 동시대에 진행한 영국의 ‘풍경식 정원’은 르네상스 전통을 계승한 프랑스의 규칙적인 기하학으로 꾸민 ‘정형식 정원’과 대비를 이루었다.

18세기 말에 이르러 ‘중국풍 정원’은 유럽에 확산되었고 ‘자렛 앙그로-시누아(jardin anglo-chinois)’라는 프랑스어로 널리 통용되었다.<sup>18</sup> 여기서 ‘앙그로-시누아(anglo-chinois)’라는 합성어의 조합은 영국 정원과 중국 정원의 상호 교류현상이 가지는 문화전이 현상의 지정학적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풍 정원’의 확산을 언급함에 있어서 중국 원림을 높이 평가한 외교관<sup>19</sup>이나 선교사 등이 수행한 ‘문화 중매자’의 역할을 확인가능하다. 이들 문화

17 그는 백작 벌링턴(Richard Boyle, 3rd Earl of Burlington, 1694-1753)을 비롯한 귀족들에게 중국 원림을 소개하였다. Basil Gray, "Lord Burlington and Father Ripa's Chinese Engravings," in *The British Museum Quarterly*, Vol.22, No.1/2 (1960), pp. 40-43.

18 Elizabeth Hope Chang, *Britain's Chinese Eye: Literature, Empire, and Aesthetics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p. 23.

19 17세기 말 유럽에 중국 원림의 비교론적 소개는 영국의 외교관이며 문학가인 윌리엄 템플(William Temple, 1628-1699)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92년 그의 글 "Upon the garden of Epicurus"에서 중국 원림의 비대칭을 유럽 정원의 균형과 대칭성과 비교하며 언급하였다. Elizabeth Hope Chang, 앞의 글, p. 28.

매개자는 ‘중국풍 정원’의 유럽 각국의 확산을 촉진하게 만든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한 것이다. 예를 들면, 스코틀랜드의 건축가인 윌리엄 챔버스(William Chambers, 1723-1796)가 쓴 『중국의 건물, 가구, 집, 기계, 도구에 대한 개론서 (*Traité des édifices, meubles, habits, machines et ustensiles des Chinois*)』는 중국 원림이 유럽에 소개되어 직접적인 영향을 준 문헌 자료 중 하나이다.<sup>20</sup> 그는 중국을 여행하며 중국 문화의 새로움을 발견하였으며 돌아올 때 옷, 가구, 건축물, 물건 등 자신이 관찰한 모든 것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출판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의 저서 『동양 정원에 관한 논문(Dissertation sur le jardinage de l'Orient)』는 중국 원림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챔버스의 책이 1772년 출간된 이후 유럽 정원제작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자연스러운 곡선미를 가진 ‘불규칙한 정원’이라고도 부르는 ‘중국풍 정원’을 만들기 위한 필수 참고문헌이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픽처레스크’ 미학을 담은 ‘풍경식 정원’과 ‘숭고(sublime)’라는 낭만주의 정신을 담아 결합한 유럽 정원예술의 새로운 미학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sup>21</sup> 챔버스의 책은 유럽 정원사에 자연과 조화를 추구한 독창적 양식을 어떻게 완성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 결과 유럽 정원은 ‘중국풍 정원’의 유행은 동·서 정원문화의 융합적인 양식의 유행을 가능하게 하였고 자연에 대한 새로운 미적 감수성을 반영한 문화전이 현상의 구체적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8세기 말 유럽 각국에 퍼진 ‘중국풍 정원’의 특징은 정원 구성계획에 있어서 자연에서 찾을 수 있는 불규칙한 형태의 정원 설계를 가진다. 그 시각적 공통점은 불규칙한 정원의 구성계획과 굽은 오솔길(meandering path)로 이루어진 산책로를 가진다. ‘중국풍 정원’은 산책의 동선을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시선의 즐거움과 놀라움을 가져오는 원림이 추구한 조경 방식을 따랐다고 볼

20 그의 저술들은 한 권으로 재출간 되었다. William Chambers, *Aux Jardins De Cathay: L'imaginaire Anglo-Chinois En Occident* (Paris: Les Éditions De L'imprimeur, 2004).

21 1710년경 철학자이며 조경가인 샤프트베리(Anthony Ashley Shaftesbury, 1671-1713)는 이탈리아의 풍경화에 심취하여 자연의 풍경을 높이 평가하였다. 영국의 ‘풍경식 정원’은 자연의 승리를 강조하며 풍경화를 정원 예술의 전형으로 삼아 1730년대에 대규모로 조성하고 유행시켰다. 당대 최고의 초기 ‘풍경식 정원’은 ‘스토우(Stowe) 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수 있다.<sup>22</sup> 18세기 영국의 독자적 양식으로 탄생한 ‘중국풍 정원’은 어느 곳에서 바라보더라도 전체 풍광을 한 눈에 들어오지 않게 계획, 관리 하였다. 한편, ‘중국풍 정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것과 산수화를 감상하는 것은 동일한 관찰자의 시선을 가진다고 해석된다. 이처럼 ‘중국풍 정원’과 산수화의 관찰자가 공통의 감상의 태도와 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산수화의 제작원리와 조형적 해석을 담은 원리를 ‘중국풍 정원’의 형식과 내용의 참고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본문에서 살펴본 18세기는 중국 원림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소개되던 시점이며 세계패권의 주도권을 준비하던 유럽 제국주의가 발호하기 직전의 시점을 공유하고 있다. 본문은 중국 정원과 유럽 정원의 문화전이 현상이 유럽 우월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이 생겨나기 직전의 상호 호혜의 시기를 다루고 있다.<sup>23</sup> 중국 원림의 제작원리를 적용한 영국의 ‘중국풍 정원’의 출현은 유럽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프랑스 ‘정형식 정원’에 도전적인 양식의 전형을 만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낭만주의의 자연회귀의 사조와 상응하며 전원의 목가적 풍경화를 반영한 ‘풍경식 정원’의 색다른 구성요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풍 정원’의 출현은 문화전이 현상이 정원사에 남긴 양방향적인 흔적이며 유럽의 탈기하학적이며 비대칭적인 자연의 곡선을 담은 정원 양식의 모델을 제시하였을 것이다. ‘중국풍 정원’의 탄생과 확산은 동·서 문화 교류가 양방향으로 진행한 18세기 문화전이 현상의 구체적 예시로 해석되며, 이 현상은 유럽 정원의 새로운 양식적 전형을 만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sup>24</sup>

22 원림의 건축구조물의 창과 문은 닫힘으로 공간의 분리를 가져오며 동시에 열림의 기능을 가진다. 중국 원림은 원근감을 감소시키는 문이나 창문의 배치는 걷는 이에게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게 하며 풍경을 계속 펼쳐 보여주며, 다양한 구도로 잘려 나타나며 시선의 변화를 제공한다.

23 1500년에서 1800년까지의 문화교류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고 오히려 서양이 상대방에 대한 문화적 동경을 강하게 가지던 시기로 해석할 수 있다. 데이비드 문젤, 김성규 역,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서울: 휴머니스트, 2009), pp. 15-16.

24 18세기 진행한 영국 정원의 구성방식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근대 개인주의의 출현과 상호 작용하였으며 유럽 계몽주의의 새로운 감각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Louis Dumont, "La genèse chrétienne de l'individualisme moderne," *Le Débat*, No. 16 (1981), pp. 124-146.

## 2. 프랑스 및 기타 지역의 '중국풍 정원'

'중국풍 정원'의 유행은 177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 정원 제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 진행된 프랑스 정원은 그 구성방식에 있어서 '중국풍 정원'을 모델로 삼았으며 직선과 기하학적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정형식 정원'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동시대의 최고의 정원이었다던 베르사유 궁정은 '중국풍 정원'의 영향을 직접 받아 그 유행을 따른 정원사의 흔적을 가진다. 예를 들면, 베르사유 궁정 안에 있었던 기하학적 정원인 '미로(迷路, labyrinthe)'를 중국 원림 양식의 불규칙한 길로 조성하였고 이국적인 식물로 조경을 더하여 '비너스의 숲(bosquet de Venus)'이라고도 부르는 '중국풍 정원'으로 탈바꿈하였다.<sup>25</sup> 이곳에는 동굴처럼 움푹 파인 바위덩이에 조각상들을 설치하고 호수나 연못에서 뿜어내는 분수와 바위 주위로 숲길을 내어 자연스러움을 더하였다. 기하학적 양식의 베르사유 궁정은 '중국풍 정원'의 영향을 받아 대규모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1779년에 새롭게 조성되었다. 그 중에 하나인 '프티 트리안옹(Petit Trianon)'에 추가한 '작은 마을'의 정원은 '중국풍 정원'의 영향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마리 앙투아네트(Marie-Antoinette, 1755-1793)를 위한 '작은 마을'의 정원은 조경가 앙투안느 리처드(Antoine Richard, 1728-1794)가 '중국풍 정원'으로 1782년 설계 제작하였다. 그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전원생활을 추구하며 사생활의 공간을 즐기려는 궁정의 취미를 살려 시골풍 정원으로 중국풍 유행을 따라 설계, 제작하였다. 앙투안느 리처드가 추가한 '작은 마을'의 정원은 '중국풍 정원'이 가지는 자연스런 곡선으로 설계되었으며 기존의 전통 프랑스 정원이 가지는 르네상스의 기하학적 설계와는 다른 양식적 대비를 이루었다.

르네상스 전통을 따르던 프랑스 '정형식 정원'은 '중국풍 정원'을 도입하여 '파브리크 더 자르탱(fabrique de jardin)'이라는 독자적 정원 양식을 만들어 나갔다. 이 정원이 가지는 수식어 '파브리크(fabrique)'의 사전적 의미처럼 세속의 초월을 '만들어내는' 인공의 정원 계획을 가졌다. 이 정원 계획은 작은 장식용

25 Jacques Levron, *Chateau et parcs royaux* (Paris: Arthaud, 1968), p. 130.



건물들을 세우고 이국적 취향과 구체적 서사(narration)를 담은 구성 방식을 특징으로 하였다. ‘파브릭 더 자르탱’은 농가, 외양간, 양우리, 대장간, 낙농장, 얼음 창고 등 색다른 구성요소를 서사적 소재로 첨가하였다.<sup>26</sup> ‘파브릭 더 자르탱’의 유행은 환상적인 고대의 모방이었으며 먼 나라의 건축으로 중국을 그 특별한 대상으로 삼았다. 중국 건축양식의 영향을 받은 ‘파빌리온(pavilion)’으로 지어진 ‘정(亭, ting)’이나 ‘누(樓, lou)’와 같은 중국식 정자들이 ‘파브릭 더 자르탱’ 안에 자주 등장하였다. ‘파브릭 더 자르탱’은 자연의 작은 섬티나 숲 속에 둘러싸인 정자 그리고 곡선을 가진 산책로로 꾸며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담았다. 이 정원의 목적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경이로움을 마련하고 금언이나 격언이 가지는 사유의 과정을 공간에 조성하여 다양한 서사적 요소를 결합하는 것이었다.<sup>27</sup> 이 정원양식은 프랑스에서 1775년부터 1790년까지 공급과잉 상태의 절정을 이루었고 유럽 지방도시의 정원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다.

18세기 말, 중국에 관한 이국적 취미를 담은 ‘중국풍 정원’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유럽의 정원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문화전이 현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프랑스의 정원과 유럽 각국의 정원들은 무르익은 ‘중국풍 정원’의 유행을 따랐고, 기존의 기하학적인 르네상스식 정원의 양식을 중국에서 가져온 문화전이적 양식으로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전체를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중국 건축양식의 작은 ‘파고다(pagoda)’와 ‘파빌리온’을 궁전과 정원에 설치하였다. 이처럼 중국 건축물과 이국적 정원의 만남은 유럽 정원의 자연주의적 취향을 반영한 양식적 변화의 특징을 강화하였고 18세기 말에 조성한 프리드리히2세(Friedrich II, 1712-1786)의 여름궁전인 ‘상수시 궁전(Château de Sans-Souci, Potsdam)’의 정원과 새롭게 조성된 베르사유 궁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중국 양식의 건축물을 설치한 ‘중국풍 정원’은 오스트리아의 쇤브룬 궁전(Château de Schönbrunn, Hietzing), 독일의 필니

26 Bernard Champignelle, *Ile-de-France* (Paris: Arthaud, 1967), p. 182.

27 한편, 그리스와 로마의 허물어진 건물을 정원의 배경처럼 설치한 ‘폐허(ruine)’라는 주제를 자주 등장시켰다. 이 ‘폐허’라는 주제는 정원제작의 서사적 구성 요소로 ‘파브릭’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Pierre Donadieu, Elisabeth Mazas, *Des mots de paysage et de jardin* (Dijon: Éducagri éditions, 2002), p. 113.

츠 궁전(Château de Pillnitz, Dresde), 스웨덴의 드로트닝홀름 궁전(Château de Drottningholm, Stockholm), 스페인의 아란후에스 궁전(Palais royal à Aranjuez, Madrid) 등 유럽 궁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풍 정원’의 출현은 유행처럼 퍼져나갔고 로코코 양식과 맞물려 중국에 관한 취미는 절정을 이루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중국풍 정원’은 르네상스의 기하학적 정원과 섞여 이국적 취향을 담아내는 혼종성의 정원문화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의 ‘유럽 정원(European garden)’의 출현은 유럽 선교사의 파송 시기와 일치하며 그 정원의 제작과 설계 또한 선교사들과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다. 18세기 예수회(Jésuits) 선교사들은 유럽의 과학과 기술을 높이 평가한 중국 황제들의 특별한 예우를 받으며 중국과 유럽의 ‘문화 중매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원림을 유럽에 소개하였고 한편으로는 당대 최고의 원림인 ‘원명원(圓明園, Yuanmingyuan)’에 동력 장치를 이용한 시설물과 유럽 양식의 건축물을 첨가한 ‘유럽 정원’을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였다.<sup>28</sup> 이 시기는 ‘중국풍 정원’이 영국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던 동시대의 문화사적 공유점을 가진다.<sup>29</sup> 원명원의 재정비 계획은 가장 훌륭한 건축물과 놀라운 전망을 가진 정원을 구상하여 실행한 것으로 선교사들이 직접 참여한 전체적 혁신을 동반하였으며 기하학적 정원의 실현이었다. 선교사들이 제작한 몇몇의 분수는 저수탱크의 수력을 이용한 기계식 설비 장치를 갖추고 있었다. 이 재정비 계획은 원림의 제작방식과 다른, 정면의 위치, 건축물이 가지는 대칭성, 원근법을 강조한 공간 효과, 기하학적 장식과 전지한 식물로 꾸며진 희소

28 원명원의 유럽 소개는 중국 원림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예수회 선교사인 장 드니 아티르(Jean-Denis Attiret, 1702-1768)의 편지(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가 1743년 출간되고 1749년경 영문으로 번역된 후의 일이다. Martin Calder, ed. *Experiencing the Garden in the Eighteenth Century* (Bern: Lang, 2006), p. 90.

29 예수회 선교사들은 건륭제(乾隆帝, Qianlong, 1711-1799)의 명을 받아 1747년에서 1759년에 수행한 원명원의 재정비 사업에 참여하였다. 밀라노 출신의 화가이며 건축 설계자인 주세페 카스틸리오네(Giuseppe Castiglione, 1688-1766)는 원명원의 재정비 계획을 위하여 선교사들의 참여를 황제에게 추천하였다. 왕지성(王致誠)이라는 황실화가 장 드니 아티르에, 화가 시첼바르트 이그나스(Sichelbarth Ignace, 1708-1780) 등은 중국 일꾼을 관리, 감독, 지휘하며 ‘유럽 정원’ 제작에 참여하였다. 프랑스 천문학자이며 선교사인 미셸 베노아(Michel Benoist, 1715-1774)는 수리학(hydraulics)에 능통하여 황제의 분수 제작자로 활동하였고 여러 중국 건축물에 유럽 방식의 분수를 설치하였다. 18세기 예수회 중국선교사의 편지를 모아 연구한 자료로 다음 문헌 *Isabelle et Jean-Louis Vissière,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de Chine par des missionnaires jésuites, 1702-1776* (Paris: Garnier-Flammarion, 1979)를 참조할 수 있다.

성 등을 적극 도입하였다. 이것은 전통 원림 양식과 확연히 구별되며 기하학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유럽 정원’의 특징을 따랐다. 원명원의 ‘유럽 정원’은 과학과 기술을 기초로 한 기하학적 설계와 구성 원리를 반영한 18세기 동·서 문화전이의 과정에서 생산된 중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으로 그 기록과 흔적을 남기고 있다. 원명원의 ‘유럽 정원’은 일찍이 중국에서 경험하지 못한 유럽의 기술과 과학을 받아들여 정원 양식의 문화적 이식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것은 르네상스 정원의 전통을 따르며 이성과 과학을 중심으로 제작한 ‘유럽 정원’의 직접적 전달이며 문화전이 현상의 한 단면으로 파악된다.

산수화의 제작원리를 담은 원림의 영향을 받은 ‘중국풍 정원’은 풍경화에 서 모델을 찾은 ‘풍경식 정원’의 미적 감수성과 어떤 공통분모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풍경화의 자연주의적 미학을 결합한 ‘풍경식 정원’은 그 조형적 접점을 원림에서도 동일하게 발견하여 적용한 것일지도 모른다.<sup>30</sup> 기하학적 정원의 해체와 더불어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미의식의 반영인 ‘풍경식 정원’은 그 영향을 주고받은 ‘중국풍 정원’의 자연의식과 미적 감수성의 원형을 산수화에서 찾는 것은 무리수가 아닐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중국풍 정원’의 문화전이 현상 속에 나타난 문화 혼종성으로 분석되며 18세기 상호 호혜의 정치·경제·사회 등의 상황과 맞물려 발생한 동서 문화전이의 수평적 관계성을 확인 가능하게 한다.<sup>31</sup>

## IV 나가며

이 논문은 영국의 ‘중국풍 정원’에 영향을 준 중국 원림의 구조와 내용이 산수화의 전통을 따른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문화 통섭의 관점으로 ‘정원예술 읽기’를 시도하였다. 산수화의 정신과 조형 원리는 ‘중국풍 정원’의 제작원리와 구성요소로 작동하였고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기 시작하던 18세기 유럽 정원

30 Augustin Berque, "Beyond the modern landscape," *AA files*, No. 25 (1993), p. 33.

31 본 논문은 중국풍 혹은 중국식으로 구별되는 양식사적 연구에 집중하므로 18세기 영국 지성계의 경험론적 미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미적 체험과 취향(taste) 그리고 고대나 중세에 대한 노스탤지어(nostalgia)를 예술적 차원으로 승화시킨 내부적 결과에 대한 연구는 남겨진 과제로 삼고자 한다.

문화의 자연주의 경향의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중국풍 정원’ 속에 자리 잡은 산수화의 자연의식과 미적 감수성은 정원사의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원림이 유럽에 소개된 이후, ‘중국풍 정원’은 정원 양식을 나타내는 용어인 ‘풍경식 정원’, ‘영국식 정원’, ‘파브리크 더 자르텐’ 등과 일련의 관계를 맺었다. 르네상스 전통의 기하학적 정원의 전형에 풍경화를 모델로 ‘픽토레스크’ 미학을 담은 ‘풍경식 정원’의 등장으로 하나의 자연주의적인 정원의 전형을 마련하였다. 18세기 ‘중국풍 정원’은 ‘풍경식 정원’과 동시대적 현상으로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며 자연주의의 미감과 이국적 취미를 담은 새로운 유럽 정원양식을 촉진하며 확산시켰다. 산수화의 조형 원리를 담은 원림의 유럽 소개는 정원문화의 융합적 방식으로 ‘중국풍 정원’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중국풍 정원’의 문화전이 현상은 ‘풍경식 정원’의 구성 원리로 스며들어 새로운 유럽 정원의 양식적 변동의 촉매적 역할로 작동한 것으로 고찰된다. 한편, 유럽 선교사들의 정원 설계와 정원제작의 참여로 이루어진 르네상스 정신을 반영한 원명원의 ‘유럽 정원’은 유럽에서 ‘중국풍 정원’처럼 문화전이의 양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예시이며 상호 호혜적인 문화전이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8세기 ‘중국풍 정원’은 ‘풍경식 정원’과 로코코 양식의 이국적 취미의 소재로 사용되었고 동시에 자연에 대한 낭만주의의 취미를 증폭시켜 나갔다. ‘중국풍 정원’의 문화전이 현상은 유럽 정원 양식의 자연주의적 특징과 낭만주의의 감수성을 촉발하였고 그 예술적 실행을 예견하였다. ‘중국풍 정원’의 등장은 문화의 차용과 동화의 과정을 거쳐 유럽 정원 문화의 양식사적 변수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 정원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한 동양의 미의식은 ‘중국풍 정원’이라는 양식적 유행을 통하여 르네상스 인본주의가 추구한 이성주의 중심의 인식(cogitation)과 감각(emotion)에 새로운 전환점을 구축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것은 ‘중국풍 정원’이 근대 정원예술의 자연주의 경향으로 이어지는 미적 감수성의 확장을 의미하며, 오늘의 정원예술과 건축과 미술

에 녹아 있는 동서 문화의 혼종성과 다원성을 확인하는 문화전이의 구체적 예시를 보여 주었다. 동서 문화의 지리학적 경계를 넘어 ‘중국풍 정원’의 연구를 한다는 것은 문화의 다양성과 혼종성과 더불어 ‘문화전이성(transculturality)’의 주체적 재인식의 기회를 부여한다. ‘중국풍 정원’을 둘러싼 18세기 정원예술의 쌍방향적인 문화전이 현상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문화가 상호 작동한다는 모범적 예시를 이루며, 서구 주도적인 문화제국주의나 오리엔탈리즘의 모순적 구조를 성찰하는 참고자료로 유효할 것이다. 산수화의 회화정신이 반영된 원림의 영향을 받은 ‘중국풍 정원’은 문화의 혼종성이 가지는 정원사의 문화전이적 변동의 흔적이며, 자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감수성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오늘을 사는 현대인의 자연주의 취미와 감각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주제어 Keywords

산수화(Shanshui Hua), 중국풍 정원(Anglo-Chinese Garden), 문화전이(Cultural Transfer), 중국 원림(Chinese Garden), 정형식 정원(Formal Garden)

투고일: 2013. 9. 10 심사완료일: 2013 10. 25 게재확정일: 2013. 11. 25

## 참고문헌 Bibliography

---

갈로, 강관식 역, 『중국회화이론사』, 서울: 미진사, 1993.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서울: 돌베개, 2007.

김흥기, 『그림이 된 건축 건축이 된 그림 1, 신화와 낭만의 시대』, 서울: 아트박스, 2007.

데이비드 문젤로, 김성규 역, 『동양과 서양의 위대한 만남 1500-1800』, 서울: 휴머니스트, 2009.

백윤수, 「원림론에 미친 화론의 영향」, 『미학』 제 41집, 2005.

안자이 신이치, 김용기·최종희 역, 『신의 정원 에덴의 정치학』,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지순임, 『산수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1990.

허영환, 『동양미의 탐구』, 서울: 학고재, 1999.

Berque, Augustin. "Beyond the Modern Landscape." In *AA files*, No. 25 (1993).

Calder, Martin. ed. *Experiencing the Garden in the Eighteenth Century*. Bern: Lang, 2006.

Chambers, Wiliam. *Aux Jardins De Cathay : L'imaginaire Anglo-Chinois En Occident*. Paris: Les Éditions De L'imprimeur, 2004.

Champignelle, Bernard. *Ile-de-France*. Paris: Arthaud, 1967.

Chang, Elizabeth Hope. *Britain's Chinese Eye: Literature, Empire, and Aesthetics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10.

Cheng, François. *Souffle-Esprit, textes théoriques chinois sur l'art pictural*. Paris: Seuil, 1989.

Donadieu, Pierre et Elisabeth Mazas. *Des mots de paysage et de jardin*. Dijon: Éducagri éditions, 2002.

Dumont, Louis. "La genèse chrétienne de l'individualisme moderne." In *Le Débat*, No. 16 (1981).

Gray, Basil. "Lord Burlington and Father Ripa's Chinese Engravings." In *The British Museum Quarterly*, Vol.22, No.1/2 (1960).

Hunt, John Dixon. *Garden and Grove: The Italian Renaissance Garden in the English Imagination, 1600-17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6.

Levron, Jacques. *Chateau et parcs royaux*. Paris: Arthaud, 1968.

Mikics, David. *A New Handbook of Literary Term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Royet, Véronique. Georges Louis Le Rouge. *Jardins anglo-chinois ou détails de nouveaux jardins à la mode*. Paris: En collaboration avec la BNF et la Bibliothèque historique de Paris, 2004.

Said, Edward W. *L'Orientalisme. L'Orient créé par l'Occident*. trans. C. Malamoud. Paris: Seuil, 1980.

Sullivan, Chip, Elizabeth Boults. *Illustrated History of Landscape Design*. New York: John Wiley&Sons, 2010.

Sullivan, Michael. *The Meeting of Eastern and Western Art*. Berkel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Vissière, Isabelle et Jean-Louis. *Lettres édifiantes et curieuses de Chine par des missionnaires jésuites, 1702-1776*. Paris: Garnier-Flammarion, 1979.

## Abstract

---

### A Transcultural Reflection on Anglo-Chinese Gardens in the 18th Century

Kim, Daesin (Incheon Catholic University)

The tradition of the representative art style in the Sinosphere, Shanshui hua, expresses the traditional representation of the harmony and principle of the universe. This tradition is reflected in the Chinese garden. These Chinese gardens were precisely the three-dimension representations of Shanshui hua, a visual form of abstract expression of the oriental philosophical thinking. This research determines and draws attention to the vestiges of the reflection of Shanshui hua in the European gardens through visual art and culture. It will also approach the two subjects, Shanshui hua and garden, from a transcultural view to integrally analyze visual art.

The appearance of Anglo-Chinese gardens, reflecting Shanshui hua, foreshowed a big change in traditional European gardens. This is a concrete example of the transcultural phenomenon. This has formed the typical naturally curved English gardens in the gardening history. This also divided these English gardens completely from the symmetrical, geometrical French gardens. This study considers the influence and the reverberation of Shanshui hua reflected on European gardens in the European culture. The cultural exchange of European and Chinese styles in the 18th century left an impact on the European gardening style history. Finally, this study analyzes the origin of these Anglo-Chinese gardens and its content to approach it with a transcultural view as a research methodology.